

광주·전남 통합논의 본궤도...이용섭·김영록 6개항 합의

민간중심·행정은 지원...용역 1년·검토 6개월 후 공론위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법 장·단점 분석 용역키로
시·도청, 소재지 문제 안되도록 통합 후에도 現기능 유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였던 시·도 통합 논의의 쟁점 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전남지사는 2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6개 항목으로 시·도 통합 논의의 원칙과 로드맵이 담겨 있다.

통합 논의는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견으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통합 추진시기와 청사 소재지도 명확히 했다.

통합 추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1단계 광주·전남 공동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한 공동 연구용역을 1년간 시행하고, 2단계 6개월간 검토·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연구용역은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해 하고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통합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 시청과 도청은 통합이후에도 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장애가 되지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합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장과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통합 논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또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다기능 부잔교 11개 설치

11억원 투입 “어획물 하선 등 어항이용 불편사항 해소”



진도군은 어획물 하선 등 어민들의 어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군면 가계항 등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11개를 설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방파제에 직접 연

결해 소형 선박이 쉽게 접안할 수 있도록 선박 높이에 맞춰 설치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어선 계류시설이 부족한 항·포구에 조수간만의 차와 재해 취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합다기능 부잔교 85대를 설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획물의 하선 등 어항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및 편의를 제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성군 ‘하이패스IC’ 진·출입로 확정...연내 실시설계

보해 장성공장 앞 삼거리서 진입해 청운교 인근서 진출

장성군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장성읍 신설 ‘하이패스 IC(나들목)’ 설치 위치를 확정했다.

장성군은 장성읍 영천리 보해공장 앞 삼거리에서 진입해 청운교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장성읍 하이패스 IC’ 노선을 확정하고 연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IC가 신설되면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으로 주민 생활편의가 확대되고, 도시 전체에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장성지역은 호남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장성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남부 방면에 위치한 톨게이트 요금소만 이용해야 했다.

장성 북부권 주민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남부 방면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반복됐다. 여기에 황룡강, 장성호 등 주요 관광지가 중·북부에 소재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도 접근성 부분에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장성군이 지난 2018년 전남도와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IC 신설을 요청하고 지난 3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지만 ‘IC 진출입로’ 결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난관에 부딪혔다.

장성중학교 방면은 국도와 고속도로가 너무 가깝고, 호남권 농산물비축기지 쪽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후면으로 진입하게 돼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장성군은 현장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토의 끝에 장성중학교~농산물비축기지의 중간 지점인 보해 장성공장 앞 삼거리를 진입로로 결정하고, 황룡강 황미르랜드 부근을 거쳐 청운교 회전교차로 인근을 진출로로 확정했다.

최종 결정된 장성읍 하이패스 IC 진입로는 800m, 진출로는 600m 규모다.

장성군이 정한 진·출입로 위치는 도로공사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에는 장성 하이패스 IC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속국도 연결허가’ 승인이 내려져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장성읍 하이패스 IC 설치에는 총 사업비 110억원(장성군 67억원·한국도로공사 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장성군은 연내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